

복합순환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과 청년기 자아정체감발달과의 관계

The Family System Types of Circumplex Model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석사 박장희
교수 정옥분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Master : Park, Jang Hee

Professor : Chung, Ock Boo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system types of circumplex model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5 middle school students, 116 high school students, and 120 college students in Seoul. The types of family system were assessed by FACES II and the ego identity of adolescents was assessed by Ego Identity Scal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family system types was found with the adolescents of 'balanced families' reporting higher ego identity than the other three family system types. College students reported the highest ego identity, follow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Females demonstrated higher ego identity than males.

주제어(Key Words): 가족체계유형(family system types), 복합순환모델 (circumplex model), 자아정체감 발달(ego identity development)

I. 서론

청년기는 부모에게 의존적이던 아동기에서 벗어

나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도기이다.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같은 사람인가?',

'세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와 같은 실존적인 의문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청년기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여 정체감 혼미에 빠지게 되면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성역할, 직업태도, 인지·도덕성 발달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서불안과 심지어는 공포증과 같은 정신병리 현상까지도 초래하게 된다(Erikson, 1968).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청년기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성인기에서의 발달과 적응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년기 자아정체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청년기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들(김형태, 1989; 이차선, 1998; Kroger, 1988; Streitmatter, 1993)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정체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후기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초기 청년과 중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Grotevant, & Thornbecke, 1982; Adams, & Jones, 1983)도 있기 때문에 초기와 중기, 후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청년기 자아정체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연구를 살펴보면, 청년기 자아정체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를 하거나(김학면, 1997; 최근임, 1994; Bilsker, Schiedel, & Marcia, 1988),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보고를 하고 있어(박경란, 1997; 이차선, 1998; 이훈표, 1996; Archer, 1989; Imbimbo, 1995; Patterson, & Sochting, Marcia, 1992)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학교환경, 가정환경, 또래관계, 자아상, 자아존중감과 같은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밝혀 내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 중 가정환경은 많은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형성 및 발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적 체계로 인식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의 태도, 양육방식과 부모-자녀관계와 같

은 부모와 자녀간의 양자(兩者)관계에 초점을 두어 청년기 자아정체감과 관련성을 규명하였다(강미애, 1991; 권순명, 1993; 송설희, 1994; 이차선, 1998).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친애적인 가족관계와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향상시켜 주었으며, 자녀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저해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원들로 구성된 가족환경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부모 또는 자녀가 가족원의 일원으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사회체계로 본다. 가족체계 내의 가족구성원 각자는 하나의 하위체계가 되며,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와 같은 양자(兩者) 가족관계가 또 다른 하위체계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체계들이 특정한 위계를 이루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전체로 유지되는 것이 가족체계이며, 하위체계들 간의 연쇄적인 상호작용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정서적 유대가 가족체계 전체에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보는 것이 가족체계이론의 관점이다. 따라서 청년도 한 가족의 일원임을 고려해 볼 때 모든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으로 청년기 자아정체감을 살펴보는 것이 부모와 자녀간의 양자(兩者)관계에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보다는 좀 더 상호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청년기 자아정체감을 조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는지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다양한 이론적 모델이 개발되어왔으며, 대표적인 것이 복합순환모델(Olson, Sprenkle, & Russell, 1979)이다. 복합순환모델은 이론과 실제 사이에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개발되었다. Olson 등은

가족 역동성을 설명하여 주는 50가지 이상의 개념들을 군집 분석하여, 가족 간의 친밀감, 거리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개념인 '응집성'과 변화에 저항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의 개념인 '적응력'을 가족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에 따라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이 중간정도로 적당히 균형을 이루는 균형가족,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중 한 요인은 적정수준이나, 나머지 한 요인은 매우 높거나 낮은 중간범위가족,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이 매우 높거나 낮은 극단가족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복합순환모델은 중간 정도의 적당한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을 지닌 가족이 기능적인 가족이며,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거나 낮은 가족은 역기능적인 가족이라는 곡선가설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려는 노력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결과에는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곡선가설을 검증한 연구들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곡선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이다(유순덕, 1987; Carnes, 1989; Clarke, 1984; Killorin, & Olson, 1984; Rodick, Henggler, & Hanson, 1986). 이러한 연구는 정상가족과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가족을 비교한 연구이다. 둘째,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과 가족기능간에 선형관계가 있는 연구이다(박경숙, 1993; 이천숙과 이희자, 1997; 전귀연, 1993; 최희량, 1998; 한공미, 1990; 한상분, 1992; Hampson, Beavers, & Hulgus, 1988; Miller, Epstein, Bishop, & Keitner, 1985; Thomas, & Cierpka, 1989). 이러한 연구는 가족기능을 측정하는 척도와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 척도와의 상관을 연구한 것이다. 셋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가족기능간에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이다(김영민, 1992; Vandvik, & Eckbland, 1993; Walker, McLaughlin, & Greene, 1988). 넷째,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각각의 영역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연구이다(Green, 1989; Beavers, Hampson, & Hulgus, 1985). 이처럼 연구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Lee

(1988)는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 척도(FACES)가 선형성의 문항과 비선형성의 문항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Olson 등은 FACES의 선형성을 인정하면서 집단 분류법과 명명법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족체계유형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 수준에 따라 '극단가족-중간범위가족-약간균형가족-균형가족'의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은 균형가족, 약간균형가족,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의 순으로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복합순환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과 청년기 자아정체감 발달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복합순환모델에 따른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여 척도의 선형성 가정을 검증하고, 2)청년기 자아정체감의 경향을 영역별로 살펴보고, 3)이러한 경향이 가족체계유형과 청년의 연령(초기·중기·후기) 및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청년이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청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에 따라 구분된 가족체계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년기 자아정체감은 가족체계유형과 청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년기의 연령을 만 12~22세로 규정하고 청년기를 초기(12~15세), 중기(16~18세), 후기(19~22세)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청년 초기에 해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청년기	청년 초기 (중학교 1, 2학년생/13.45세) 남자	62	17.7
	청년 초기 (중학교 1, 2학년생/13.45세) 여자	53	15.1
	청년 중기 (고등학교 1, 2학년생/16.51세) 남자	54	15.4
	청년 중기 (고등학교 1, 2학년생/16.51세) 여자	62	17.7
	청년 후기 (대학교 1, 2, 3학년생/20.42세) 남자	63	17.9
	청년 후기 (대학교 1, 2, 3학년생/20.42세) 여자	57	16.2
출생 순위	첫째	163	46.8
	중간	39	11.2
	막내	125	35.9
	외동	21	6.0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4	7.0
	고졸	137	39.8
	대졸	130	37.8
	대학원졸 이상	53	15.4
아버지의 직업	무직 및 기타	6	1.8
	생산노무직	31	9.1
	판매/서비스직	87	25.5
	사무직	69	20.2
	전문기술직	55	16.1
	관리/전문직	93	27.3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48	14.2
	고졸	165	48.7
	대졸	106	31.3
	대학원졸 이상	20	5.9
어머니의 직업	전업주부	203	64.4
	시간제 취업	22	6.9
	전일제 취업	92	29.0

당하는 중학교 1, 2학년생과 청년 중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 2학년생, 청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교 1, 2, 3학년생, 3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3학년생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특성상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시내 소재 2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5개 대학교 학생들로 각 학교별로 서로 다른 학군에서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1) 가족체계유형척도

가족체계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Olson 등 (1983)이 제작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척도(FACES II)를 김진희(1989)가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FACES II는 자기 보고식 척도로서, 정서적 유대, 경계, 연합, 시간, 공간, 친구, 의사결정, 취미와 오락의 8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응집성 문항(16문항)과 주장, 통제, 훈육, 협상방식, 역할관계, 관계규칙의 6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적응력 문항(14문항),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중 부정문의 문항은 역채점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 수준에 따라 구분한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가족, 균형가족의 네 가지 유형을 가족체계유형으로 보았다.

가족체계유형을 구분하여 주는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① 가족 응집성: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 가족 응집성은 Olson 등 (1983)이 제작한 FACES II의 점수에 따라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연결의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② 가족 적응력: 상황적 혹은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자체의 권력 구조, 역할 관계,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을 의미한다. 가족 적응력은 FACES II의 점수에 따라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의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으로는 $M \pm SD$ 의 방법으로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 집단을 각각 8개의 수준으로 나눈 뒤,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 수준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 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가족체계유형} = \frac{\{\text{응집성 수준}(1\sim 8\text{점}) + \text{적응력 수준}(1\sim 8\text{점})\} \times \frac{1}{2}}$$

김진희(1989)가 보고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김진희가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2) 청년기 자아정체감척도

청년기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이차선(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차선의 척도는 자기 보고식 척도로서, 안정성(9문항), 목표지향성(10문항), 자기존재의 독특성(10문항), 자기수용(10문항), 자기주장(10문항), 대인역할 지각(9문항)의 6개 하위요인,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6개 하위요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정성: 시간의 경과와 유동적인 대인관계 속에서도 「일관되고 동질적인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의미한다.
- ② 목표지향성: 자신의 인생목표, 자기 행동의 방향과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 ③ 자기존재의 독특성: 현재의 능력, 신체적, 심리적 특성 면에서 타인과 비교되는 자아상을 의미한다.
- ④ 자기수용: 자기가 속한 사회와 문화의 규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되는 자아상을 의미한다.
- ⑤ 자기주장: 사회적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구애 없이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을 의미한다.
- ⑥ 대인역할 지각: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의미한다.

문항별 반응 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확실히 그렇다(4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중 부정문의 문항은 역채점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이다. 이차선이 보고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82$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01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실시방법은 본 연구자가 해당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께 진행방법을 설명한 후 담임선생님의 지도로 교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대학교에서는 교양과목 시간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총 440부 중 421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부실 기재한 자료를 제외하여 총 3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WIN 9.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문제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삼원변량분석 및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가족체계유형의 일반적인 경향

먼저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청년이 지각

<표 2> 청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의 수준별 분류

응집성 수준(응집성 점수)	과잉분리(1~2점)	분리(3~4점)	연결(5~6점)	매우 연결(7~8점)	전체
점수범위	16~46	47~55	56~63	64~80	M 55.52
빈도	53	122	108	68	SD 8.57
백분율	15.1%	34.7%	30.7%	19.4%	

〈표 3〉 청년이 지각한 가족 적응력의 수준별 분류

적응력 수준(적응력 점수)	경 직(1~2점)	구조적(3~4점)	융통적(5~6점)	매우 융통적(7~8점)	전 체
점수범위	14~39	40~46	47~54	55~70	M 47.37
빈 도	49	107	129	66	SD 7.56
백 분 율	13.9%	30.5%	36.8%	18.8%	

〈표 4〉 가족체계유형의 빈도와 백분율

가족체계유형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균형가족	균형가족
빈도	33	104	142	72
백분율	9.4%	29.6%	40.5%	20.5%

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을 $M \pm SD$ 의 방법으로 각각의 수준별로 분류하였다.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청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의 수준은 분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연결, 매우 연결, 과잉분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적응력의 수준은 융통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구조적, 매우 융통적, 경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가족체계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M \pm SD$ 의 방법으로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 집단을 8개 수준으로 나눈 뒤, 가족 응

집성 및 적응력 수준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취했다. 청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 수준에 따라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한 결과 약간균형가족,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 극단가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표 4 참조).

2.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일반적인 경향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청년기 자아정체감(전체)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

〈표 5〉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	자아정체감 (전 체)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초기 청년 (중 1, 2학년생)	남자	21.79(2.70)	25.94(4.80)	25.18(2.87)	24.77(3.87)	24.79(3.03)	23.77(3.61)	146.24(10.24)
	여자	20.89(2.55)	25.19(4.33)	25.72(3.08)	22.85(4.18)	24.09(3.58)	25.94(3.94)	144.68(13.27)
	전체	21.37(2.66)	25.59(4.58)	25.43(2.97)	23.89(4.11)	24.47(3.30)	24.77(3.90)	145.52(11.71)
중기 청년 (고 1, 2학년생)	남자	21.69(3.46)	25.48(5.36)	26.04(2.37)	25.07(4.78)	24.33(3.58)	25.54(3.36)	148.15(13.72)
	여자	21.66(3.43)	26.06(4.74)	26.34(2.71)	24.21(4.15)	24.94(3.87)	26.60(3.59)	149.81(14.43)
	전체	21.67(3.43)	25.79(5.03)	26.20(2.55)	24.61(4.46)	24.66(3.73)	26.10(3.51)	149.03(14.07)
후기 청년 (대학 1, 2, 3학년생)	남자	23.83(3.28)	29.19(3.92)	26.92(3.28)	26.14(3.93)	26.44(3.82)	26.16(3.44)	158.68(13.26)
	여자	23.47(3.01)	26.68(4.81)	27.21(3.19)	26.98(4.02)	27.30(4.06)	27.04(3.41)	160.68(14.18)
	전체	23.66(3.14)	28.95(4.35)	27.06(3.23)	26.54(3.98)	26.85(3.94)	26.58(3.43)	159.63(13.68)
전 체	남자	22.47(3.29)	26.94(4.96)	26.05(2.96)	25.35(4.21)	25.23(3.59)	25.15(3.61)	151.20(13.58)
	여자	22.02(3.21)	26.66(4.84)	26.44(3.03)	24.71(4.43)	25.46(4.06)	26.55(3.65)	151.83(15.40)
	전체	22.25(3.25)	26.81(4.90)	26.24(3.00)	25.03(4.32)	25.34(3.82)	25.83(3.69)	151.51(14.48)

면, 후기 청년, 중기 청년, 초기 청년의 순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이 후기 청년, 중기 청년, 초기 청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남녀에 따라 살펴보면,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수용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6> 가족체계유형, 청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삼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안정성	가족체계유형(A)	274.43	3	91.48	10.45***
	연령(B)	248.24	2	124.12	14.18***
	성(C)	73.07	1	73.07	8.35**
	A×B	82.93	6	13.82	1.58
	A×C	49.18	3	16.39	1.87
	B×C	.94	2	.47	.05
	A×B×C	61.52	6	10.25	1.17
	오차	2862.05	327	8.75	
	전체	3700.43	350		
목표 지향성	가족체계유형(A)	978.83	3	326.28	16.81***
	연령(B)	491.84	2	245.92	12.67***
	성(C)	104.76	1	104.76	5.40*
	A×B	94.82	6	15.80	.81
	A×C	122.64	3	40.88	2.11
	B×C	12.41	2	6.20	.32
	A×B×C	109.77	6	18.29	.94
	오차	6346.03	327	19.41	
	전체	8396.83	350		
자기존재의 독특성	가족체계유형(A)	9.38	3	3.13	.37
	연령(B)	165.37	2	82.69	9.71***
	성(C)	4.594E-02	1	4.594E-02	.01
	A×B	82.91	6	13.82	1.62
	A×C	32.16	3	10.72	1.26
	B×C	22.52	2	11.26	1.32
	A×B×C	68.17	6	11.36	1.33
	오차	2784.73	327	8.52	
	전체	3147.90	350		
자기수용	가족체계유형(A)	189.14	3	196.38	12.40***
	연령(B)	243.58	2	121.79	7.69*
	성(C)	98.09	1	98.09	6.19*
	A×B	105.92	6	17.65	1.12
	A×C	59.63	3	19.88	1.26
	B×C	61.64	2	30.82	1.95
	A×B×C	90.77	6	15.13	.96
	오차	5178.34	327	15.84	
	전체	6543.59	350		

〈표 6〉 계속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자기주장	가족체계유형(A)	357.58	3	119.19	9.38***
	연령(B)	214.50	2	107.25	8.44***
	성(C)	12.98	1	12.98	1.02
	A×B	59.17	6	9.86	.78
	A×C	50.25	3	16.75	1.32
	B×C	32.87	2	16.43	1.29
	A×B×C	95.45	6	15.91	1.25
	오차	4157.40	327	12.71	
	전체	5109.29	350		
대인역할	가족체계유형(A)	445.76	3	148.59	12.82***
	연령(B)	80.64	2	40.32	3.48*
	성(C)	30.34	1	30.34	2.61
	A×B	32.01	6	5.34	.46
	A×C	30.51	3	10.17	.88
	B×C	1.01	2	.50	.04
	A×B×C	57.19	6	9.53	.82
	오차	3989.90	327	11.59	
	전체	4761.74	350		
자아정체감 (전체)	가족체계유형(A)	12941.44	3	4313.81	30.90***
	연령(B)	7726.61	2	3863.31	27.67***
	성(C)	705.87	1	705.87	5.06*
	A×B	640.65	6	106.78	.77
	A×C	1210.20	3	403.40	2.90*
	B×C	217.07	2	108.54	.78
	A×B×C	1037.05	6	172.84	1.24
	오차	45654.65	327	139.62	
	전체	73427.73	350		

*p<.05 **p<.01 ***p<.001

3. 가족체계유형, 청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청년기 자아정체감

청년기 자아정체감이 가족체계유형, 청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정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아정체감(전체)은 가족체계유형, 청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균형가족이 약간균형가족, 중간범위가족 및 극단가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에서 균형가족이 약간균형가족과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후기 청년이 중기 청년과 초기 청년보다 자아정체감(전체)이 높았다. 하위요인에서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에서 후기 청년이 중기 청년과 초기 청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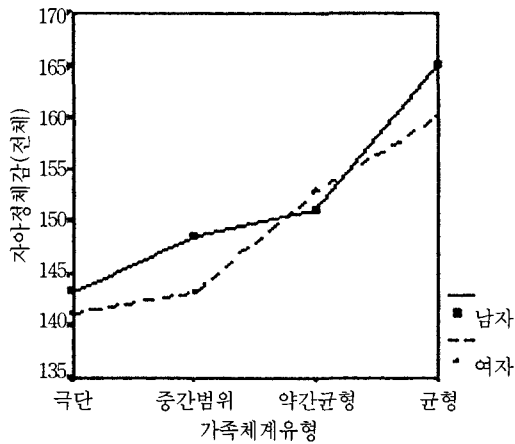
남녀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자아정체감(전체)이 높았다. 그러나, 하위요인 중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수용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 가족체계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자아정체감(전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표 7> 가족체계유형과 청년의 연령별 비교를 위한 사후검증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	자아정체감 (전 체)
		M(SD)	M(SD)	M(SD)	M(SD)	M(SD)	M(SD)	M(SD)
가족체계 유형별	극 단	20.45(3.12)a	24.21(4.51)a	26.21(2.96)a	22.91(3.44)a	23.88(3.28)a	24.64(3.34)a	142.30(10.86)a
	중간범위	21.82(3.23)ab	25.13(4.62)a	25.96(3.14)a	24.29(4.43)ab	24.68(3.55)a	24.82(3.55)a	146.70(13.19)ab
	약간균형	22.31(3.05)b	27.49(4.81)b	26.18(2.68)a	25.08(3.83)b	25.30(3.62)a	25.69(3.52)a	152.05(13.37)b
	균 형	23.60(3.24)c	29.06(4.34)b	26.76(3.38)a	27.00(4.72)c	27.07(4.25)b	28.11(3.40)b	161.60(14.02)c
	F	10.45***	16.81***	.37	12.40***	9.38***	12.82***	30.90***
연령별	초기	21.37(2.66)a	25.59(4.58)a	25.43(2.97)a	23.89(4.11)a	24.47(3.30)a	24.77(3.90)a	145.52(11.71)a
	중기	21.67(3.43)a	25.79(5.03)a	26.20(2.55)ab	24.61(4.46)a	24.66(3.73)a	26.10(3.51)b	149.03(14.07)a
	후기	23.66(3.14)b	28.95(4.35)b	27.06(3.23)b	26.54(3.98)b	26.85(3.94)b	26.58(3.43)b	159.63(13.68)b
	F	14.18***	12.67***	9.71***	7.69*	8.44***	3.48*	27.67***

*p<.05 **p <.01 ***p<.001 abc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그림 1> 자아정체감(전체)에 대한 가족체계유형과 성의 상호작용

<표 8> 가족체계유형과 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전체)의 단순주효과 검증

	남	여
	M(SD)	M(SD)
극 단	143.35(7.57) a	141.19(13.72) a
중간범위	148.72(12.25) a	143.33(14.15) a
약간균형	151.21(12.22) a	153.02(14.63) b
균 형	165.14(16.73) b	160.14(12.63) b
F	11.81***	14.28***

***p<.001 ab: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러나, 하위요인에서는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체계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정체감(전체)이 높은 반면에 약간균형가족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그림 1 참조).

자아정체감(전체)에 대한 가족체계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남녀별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년기 자아정체감을 분석하는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자의 경우 균형가족이 극단가족과 중간범위가족, 약간균형가족보다 높은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균형가족과 약간균형가족이 중간범위가족과 극단가족보다 높았다(표 8 참조).

I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순환모델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년기 자아정체감을 확인하고 규명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년기 자아정체감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과 청년기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복합순환모델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년기 자아정체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논의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청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을 분류한 결과 가족 응집성의 수준은 분리, 연결, 매우 연결, 과잉분리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가족 적응력의 수준은 융통적, 구조적, 매우 융통적, 경직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 수준에 따른 가족체계유형은 약간균형가족,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 극단가족의 순으로 많았다.

둘째, 청년기 자아정체감(전체)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후기 청년, 중기 청년, 초기 청년의 순으로 자아정체감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이 후기 청년, 중기 청년, 초기 청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남녀에 따라 살펴보면,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수용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셋째, 청년기 자아정체감(전체)을 가족체계유형, 청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가족체계유형, 청년의 연령과 성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체계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에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에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주효과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수용에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 자아정체감(전체)을 제외한 어떠한 하위요인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가족체계유형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균형가족, 약간균형가족, 중간범위가족 및 극단가족의 순

으로 자아정체감(전체)이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균형가족이 다른 가족체계유형보다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과 청년기 자아정체감이 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여진다. 먼저,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강조하는 서구 문화권과는 달리 화목과 단결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의 가족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에서 유입된 가치관으로 인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전통사회에 비하여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인보다는 가(家)를 중시하는 가족주의가 우리나라 가족성원들의 의식 및 행위를 좌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족을 대상으로 FACES를 분석한 연구(김수연과 김득성, 1997)에서는 FACES에서 가족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역기능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요인을 우리나라 가족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된 바를 고려해 볼 때 FACES가 우리나라 가족과 같은 높은 수준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을 지닌 가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FACES에 대한 평가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일반가족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곡선가설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반가족과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가족을 비교한 연구들(유순덕, 1987; Carnes, 1989; Clarke, 1984; Killorin, & Olson, 1984; Sebes, & Schellebach, 1985)인 반면에,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수진, 1997; 김진희, 1989; 박경숙, 1993; 이천숙과 이희자, 1997; 전귀연과 최보가, 1993; 한공미, 1990; 한상분, 1992)은 본 연구와 같이 선형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은 임상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기능과 곡선관계가 있지만, 일반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기능과 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을 측정하는 척도(FACES)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체계의 역동적인 변화는 1차적 변화와 2차적 변화의 두 가지 수준에서 볼 수 있다. 1차적 변화는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너무 많은 변화나 적은 변화는 문제가 있다는 곡선의 개념이다. 그러나 2차적 변화는 한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의 변화를 말한다. 이것은 체계 자체의 변화이며 선형적 개념이다. Olson 등이 복합순환모델에서 정의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은 1차적 변화의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이 높거나 낮은 불균형적인 가족유형보다는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이 중간인 균형적인 가족유형이 더 기능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Lee(1988)는 Olson 등이 복합순환모델에서 정의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의 개념은 1차적 변화의 개념이지만, 이를 측정하는 FACES는 1차적 변화의 개념과 2차적 변화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과 가족 기능간에 곡선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FACES를 분석한 연구들(김득성과 김수연, 1997; Lee, 1988; Green, Harris, Forte, & Robinson, 1991)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일부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FACES 문항들은 가족의 기능과 선형적인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과 청년기 자아정체감이 선형관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FACES의 일부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이 선형성이 강한 문항이라는 척도 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과 청년기 자아정체감이 선형관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과, 일반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특성, 척도(FACES)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연구마다 가족체계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을 네 수준으로 가를 때의 분할점이 다르고, 가족체계유형

도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의 세 유형(예: 유순덕, 1987; Carnes, 1989; Clarke, 1984; Killorin, & Olson, 1984) 또는 HH가족, HL가족, LH가족, LL가족의 네 유형¹⁾(예: 김수진, 1997; 박경숙, 1993; 한공미, 1990)으로 구분하거나 본 연구와 같이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균형가족, 균형가족(예: 이천숙과 이희자, 1997; 전귀연과 최보가, 1993)으로 구분하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족에게 적합한 가족체계유형을 구분하여 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후기 청년이 초기 청년과 중기 청년보다 자아정체감(전체)이 높았다. 그러나, 초기 청년과 중기 청년의 자아정체감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에서 후기 청년이 초기 청년과 중기 청년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 자아정체감이 청년중기에 정체를 보이다가 후기에 상승하였다는 연구(심계전, 1985; 이차선, 1998)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에 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탐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와 이에 따른 타율적이고 획일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우리나라의 초·중기청년은 자아에 대한 탐색이나 진로 결정, 역할 모색 등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위기감을 경험해 볼 여유를 갖지 못한다. 더욱이 청년 초·중기에는 신체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초·중기청년은 자아정체감 형성보다는 신체의 변화에 관심을 더 갖게 된다(조복희 외 2인, 1989). 따라서, 청년기 자아정체감이

1) 이러한 가족체계유형은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 집단을 각각 2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분류한 것이다. 즉,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HH가족은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이 모두 높은 가족이고, HL가족은 가족 응집성이 높고 적응력이 낮은 가족이다. 그리고, LH가족은 가족 응집성이 낮고 적응력이 높은 가족이며, LL가족은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이 모두 낮은 가족이다.

청년초기에서 중기에 정체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후기에는 입시에 대한 증압감에서 자유로워지고,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탐색을 하는 등 자아정체감 형성과제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인 모색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청년기 자아정체감이 초기와 중기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청년기 자아정체감(전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던 전통적인 견해가 완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어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여성이 만남, 가족, 성적 관심, 친구 관계와 같은 대인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인영역은 외부 세계, 접촉, 관계 지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남성은 직업선택, 종교적 신념, 정치적 신념과 같은 개인내적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남성의 개인내적영역은 내면화와 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면화와 분리하는 자아정체감의 성취를 촉진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LaVoie, 1994).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크게 변화되었다. 더욱이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자아실현 욕구와 자기 발전의 욕구가 증가되면서 남성 우월적인 전통적인 견해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전통적인 견해를 비판하는 주장에 따르면, 자아정체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비슷하게 점성적으로 발달되는 발달과업으로 정체감 발달에서 보여지는 성차는 남성에게는 직업 지향적이며, 독립적일 것을 기대한 반면에 여성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관계의 범주 안에서 자신을 정의할 것을 기대하는 사회·문화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호주와 핀란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연구(Nurmi, Poole, & Kalalowski, 1994, 1996)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과 '직업' 영역에서 더 분명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교육과 직업 세계에서 여성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위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수용이 자아정체감(전체)과 달리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견해를 비판하는 주장처럼 민주주의와 평등을 강조하는 서구의 가치관, 산업화로 인한 의식구조의 변화가 사회적인 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사회가 남성에게는 직업 지향적이며 독립적일 것을 기대하고, 여성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관계의 범주 안에서 자신을 정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에서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치가 남아있어 남아에게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을 길러 주고자 하는 반면에, 여아에게는 의존성을 길러 주고자 하는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가족체계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극단가족과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은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약간균형가족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가족체계유형과 성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을 하여본 결과 남녀 모두 균형가족의 청년기 자아정체감이 다른 가족체계유형보다 높았다. 그러나 남자는 극단가족과 중간범위가족, 약간균형간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약간균형가족이 극단가족과 중간범위가족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는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딸은 부모에게 강한 심리적 애착과 의존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갈등적인 독립이 딸의 정체감 유실과 관련이 있었지만, 아들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의 영향이 적게 나타난 연구(Palladino-Schultheiss, & Blustein, 1994)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대인관계에 민감하고 가족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남아에게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을 길러 주고, 여아에게는 의존성을 길러 주고자 하는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추후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이미 논의되었듯이 가족체계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을 네 수준으로 가를 때의 분할점과 가족체계유형의 구분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연구들을 비교하고 고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에게 적합한 가족체계유형을 구분하여 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 척도는 Olson 등이 제작한 것을 번안한 것으로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에 적합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소재의 학교에 재학중인 청년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미애(1991). 농촌지역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위인간의 상관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연, 김득성(1997).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59-74.
- 김수진(1997). 대학생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 만족도와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민(1992). 장기장애인 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기능비교: Circumplex Model과 스트레스적응방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학면(1997).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습된 무력감과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 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란(1997).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년기 여성이 인지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 송설희(1994). 가족 유형화와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계전(1985).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차선(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변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천숙, 이희자(1997). 가족체계유형 및 자아분화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 대한가정학회지, 35(3), 101-113.
- 이훈표(1996). 청소년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 33(3), 157-173.
- 조복희, 정옥분, 유가호(1989). 인간발달: 발달심리적 접근. 서울 : 교문사.
- 최근입(1994). 가정환경과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 간의 상관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량(1998).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 문제성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공미(1990).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 유형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분(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 유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G. R. & Jones, R. M. (1983). Female adolescents' identity development: Age comparisons and perceived child-rearing experi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49-256.
- Archer, S. L. (1989). Gender differences in identity development: issues of process, domain and timing. *Journal of Adolescence, 12*, 117-138.
- Beavers, W. R., Hampson, R., & Hulgus, Y. F. (1985). Commentary: The beavers system approach to family assessment. *Family Process, 24*, 398-405.
- Bilsker, D., Schiedel, D., & Marcia, J. (1988). Sex difference in Identity status. *Sex Roles, 18*, 231-236.
- Carnes, P. (1989). *Contrary to love: Helping the sexual addict*. Minneapolis, MN: Comp Care Publications.
- Clarke, J. (1984). The family types of neurotics, schizophrenics and norm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 W.W. Norton.
- Green, R. G., Harris, R. N. Jr., Forte, J. A., Robinson, M. (1991). The wives data and FACES IV: Making things appear simple. *Family Process, 30*, 79-83.
- Grotevant, H. D. & Thorbecke, W. L. (1982). Sex differences in styles of occupational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96-405.
- Hampson, R., Beavers, W. R., & Hulgus, Y. F. (1988). Commentary : Comparing the beavers and circumplex model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7*, 85-92.
- Imbimbo, P. V. (1995). Sex differences in the Identity formation of college students from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6), 745-761.
- Killorin, E. & Olson, D. H. (1984). The chaotic flippers in treatment. In Kaufman, E.(ed), *Power to change: Alcoholism*. New York: Gardner Press.
- Kroger, J. (1988). A longitudinal study of ego identity status interview domains. *Journal of Adolescence, 11*, 49-64.
- Lee, C. (1988). Theories of family adaptability : Toward a synthesis of Olson's Circumplex and beavers system models. *Family Process, 27*, 73-85.
- LaVoie, J. C. (1994). Identity in adolescence : Issues of theory, structure and transition. *Journal of Adolescence, 17*, 17-28.
- Miller, I. W., Epstein, N. B., Bishop, D. S., & Bishop, D. S., & Keitner, G. I. (1985).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 Reliability and valid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345-356.
- Nurmi, J., Poole, M. E., & Kalakoski, V. (1994). Age differences in adolescent future-oriented goals, concerns, and related temporal extension in deferent sociocultural contex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471-487.
- _____ (1996). Age differences in adolescent identity exploration

- and commitment in urban and rural environments. *Journal of Adolescence*, 19, 443-452.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8, 3-28.
- Palladino-Schultheiss, D., & Blustein, D. (1994), Contributions of family relationship factors to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73, 159-166.
- Patterson, S. J., Sochting, I., & Marcia, J. E. (1992). *The inner space and beyond women and identity*. In Adolescent Identity, Adams, G. R., Gullotta, T. P., & Montemayor, R.(Eds). Newbury Park, Ca: Sage.
- Rodick, J. D., Henggler, S.W., & Hanson, C. L. (1986). An evaluation of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s (FAC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 Sebes, J. & Schellenbach, C. (1985). Family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55, 174-183.
- Streitmatter, J. (1993). Brief report : Identity status and identity style : A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16, 211-215.
- Thomas, V. K. & Cierpka, M. (1989). FACES III and FAM III: A comparison of family assessment instruments. Presentation at the 1989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Annual Conference, New Orleans LA.
- Vandvik, I. H., Eckblad, G. F. (1993). FACES III and the Kvebeak Family Sculpture Technique as Measures of Cohesion and Closeness. *Family Process*, 32, 221-233.
- Walker, L. S., McLaughlin, F. J., & Greene, J. W. (1988). Functional illness and family functioning: A comparison of healthy and somaticizing adolescents. *Family Process*, 27, 317-325.